경기양극화 현상 계속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상승국면이 9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5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4.1%가 증가한데 이어 4월에도 13.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 4월중 생산동향 (단위 : %)

구 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누계비
음식료품	-5.2	-2.3	2.5
담배	-3.6	-6.1	-8.7
섬유	-1.4	-2.6	-0.7
의복및모피제품	-2.7	0.7	5.4
가죽,가방및신발	-14.2	-18.8	-13.5
목재및나무제품	-2.2	-6.5	-3.8
종이제품	1.5	8.7	9.0
인쇄출판	0.6	14.7	16.8
코크스및석유정제	-0.9	15.5	13.9
화합물및화학제품	3.9	10.3	6.9
고무및플래스틱	-5.2	2.3	7.6
비금속광물제품	-0.9	6.5	7.2
제1차금속산업	2.2	11.9	9.5
조립금속제품	-2.0	22.6	21.9
기타기계및장비	-1.2	23.9	19.3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	-10.0	30.3	40.3
기타전기기계	1.4	29.2	27.5
영상,음향및통신기계	-0.5	23.4	33.8
의료,광학기계및시계	-1.8	12.8	13.8
자동차및트레일러	-1.8	23.4	21.1
기타운송장비	-4.2	13.5	20.2
가구및기타제조업	-7.1	0.2	2.8

4월중 산업생산은 그러나 중화학공업이 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경공업은 1.1%가 줄어들어 최근 중화학공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간 심한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생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업종은 음식료품(-2.3%), 담배(-6.1%), 섬유(-2.6%), 가죽·가방·신발(-18.8%), 목재 및 나무제품(-6.6%)등이다.
이처럼 산업생산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수준을 알려주는 각종지표들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4월중 국내기계수주는 전력·통신등 공공부문과 자동차·조립기계·1차금속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동기 대비 28.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계류 수입액도 27.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건축허가면적은 공업용·주거용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4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2%(계절조정치)로 사실상 완전고용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2>